

산업안전보건법 중 개정법률안 입법 예고

노동부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의결 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번에 개정될 법률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건설업에 있어서 관리감독자 중에서 별도로 안전담당자를 지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해 사업장내 관리감독자가 동업무를 수행하도록 일원화 함으로서 건설현장의 안전조직을 일원화 ▲ 현행 표준안전관리비의 명칭을 제도 취지에 맞도록 근로

자안전보건관리비로 그 명칭을 수정하고, 표준안전관리 계상을 의무화 하도록 한 선박건조·수리업은 발주자가 대부분 외국인으로 표준안전관리비 부담을 부여시 투자 기피 등 대외 국제 경쟁력 악화가 우려됨에 따라 폐지함 ▲ 작업환경 측정기관으로 지정 취소된 자는 취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정 측정기관으로 지정 받을 수 없게 하므로서 측정의 신뢰성 확보 ▲ 유해·위험방지 계획서를 개선하여 일정 자격을

법정화하지 않고 민간자율로 정할 수 있도록 개선 ▲ 국내 석유·정유공정에 대한 공장안전보고서 심사의 주기를 정기적인 검사에서 신설·증설시로 한정함 ▲ 근로감독관이 사업장 출입하는 근거가 되는 출입기준을 정하여 사업장 감독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근거 신설 ▲ 행정규제 완화를 위하여 지도사의 직무교육 의무실시 폐지 등으로 하고 있다.

“LG 정보통신” 안전보건 초일류기업 인증 획득

LG 정보통신이 안전보건분야 최고의 기업을 선정하는 안전보건 초일류기업 인증을 노동부로부터 획득했다.

LG 정보통신이 이번에 획득한 안전보건 초일류기업 인증은 '96년 노동부가 사업안전선진화 3개년 핵심사업 일환으로 도입했으며, 평가기관인 대한산업안전협회가 20개 규정항목 및 175개 기준항목을 통해 기업의 안전보건관리 수준을 종합 평가하고 90점 이상 취득한 기업 및 사업장에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다.

지난 '84년 무재해 운동을 추진한 이래 16년간 무재해를 기록한 LG 정보통신 구미사업장은 각종 공사시 사전 안전작업 허가 제도를 통해 사업장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안전보건제안제도 활성화, 부서별 자율 안전점검 정착, 안전보건 전시회 개최 및 사전 안전성 여가 등 안전보건 초일류 기업이 되기 위한 각종 안전보건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으며, 이번 인증을 통해 안전보건관리 활동에 대한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마련됐다.

또한, LG 정보통신은 이번 안전보건 평가심사에서 '96년 평가 실시 이래 평균 98.66이라는 최고 점수를 획득, 안전보건분야 최고의 기업으로 부상하게 됐다.

한편, 이번 안전보건 초일류기업 인증을 획득한 기업은 노동부장관 명의의 인증서 및 인증패가 수여되며, 인증일로부터 2년간 각종 정부기관으로부터 행정지도가 배제되는 동시에 기업 안전보건 활동의 자율적 시행 등 각종 혜택이 부여된다.

LG마이크론(주)구미공장 TSC 실시

대한산업안전협회는 Shadow Mask를 주요생산품으로하는 전자부품제조업으로 총 900여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LG 마이크론(주)구미공장에 대해 종합안전컨설팅(TSC)을 실시하였다.

이번 TSC는 기업전체의 경영차원으로 노·사가 안전경영 마인드를 갖고 체계적으로 자발적 참여로 생산성 향상과 ISO시리즈 등 안전보건문제의 급격한 국제적 변화에 적극적

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부분에 대해 실시 하였으며, 공정안전 업무와 관련하여 위험성 평가기법(M-HAZOP)을 선택하여 공정내 잠재되어 있는 위험성을 도출·제거 하였다. 또한, 각종 기계·기구 및 설비 등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관리 상태에 대해 현장조사·측정 및 분석을 통하여 유해·위험요인을 찾아 LG마이크론(주) 구미공장 실정에 맞는 개선 대책을

수립·제시하였다

TSC는 크게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위험성평가부분”, “안전진단부분”으로 실시하였다.

건축공사 현장 단속·점검 실명제 실시

건설교통부는 건축굴의 건축공사현장을 방문·조사함에 있어서 방문목적과 현황을 실명화하여 공사현장 방문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서 불필요한 현장 방문을 억제 및 부조리소지를 없애고 건축현장의 생산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11월 1일부터 현재 진행 중인 건축공사 현장(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발

주하는 총공사비 10억원 이상의 건축공사 현장 제외)에 대해 단속·점검을 위해 방문하는 자에 대해서는 실명제를 실시 한다고 발표하였다.

건축공사현장을 방문하고자 하는 자는 방문 3일전에 공사현장의 건축주 또는 공사시공자에게 “현장방문일시”, “현장문일시”, “방문근거 및 목적”, “방문자 인적사항(소속, 직

급, 성명, 서명)”, “점검할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번 발표로 그 동안 암암리에 일어나고 있던 부조리가 얼마 만큼 해소될지 기대되어진다.

한국안전전문기관협의회 제14차 정기회의 및 세미나 개최

한국안전전문기관협의회는 지난 10월 15일(금) 대한산업안전협회 서울지회에서 제14차 정기총회 및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정기회의에 앞서 대한산업안전협회 이원주 전문위원의 “지하철 BOX구조물 안전성평가 기법”, 대한산업안전협회 최세환 박사의 “구조물 파괴 해체시 특성 및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한국원자력연구소 종합안전평가팀 진영호 부장의 “일본 핵연료가공회사(JCO) 사고 현황

및 분석과 월성 원자력 3호기 중수 누설사고 분석”에 대해 안전기술세미나 발표를 하는 것으로 시작하였다.

이번 정기회의의 주요 안건 임원 선출에서 회장에 서울산업대학교 안전과학연구소의 김용수 교수가 선출되었다.



안양문예회관 무대안전진단 실시

대한산업안전협회에서는 안양문예회관에 대해 시설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의 1,2종 시설물 안전진단 및 점검을 지난 9월 6일에 시작하여 10월 20일에 끝맺었다.

안양문예회관의 공연장의 구성은 대공연장, 소공연장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각 1,481석, 527석 규모의 객석이 구비되어 있고, 음향 반사판, 조명 반텐, 오케스트라 리프트 등 다양한 무대설비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의 무대설비를 중

량물들로 상부에 매달리거나 하부에서 상·하 운전을 하고 있어 사용빈도와 내구연한에 따라 예기치 않는 고장이나 에러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본

안전진단은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무대기계·설비의 전반에 관한 종합적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 하였다.

